

교회정관·재정운용 규칙 제정에 관한 설명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모범정관 운용방향 등 설명, 적극 활용토록

교단 정책위원회 모임 가져

교단 정책위원회는 지난 2월 1일(목) 오전 11시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대표기도 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엠 5:8-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축복에 대하여 전하고 주 안에서 빛 된 우리들이 빛에 거하여 어두움을 물리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서기 이영주 목사의 회인점명 후 조용목 목사는 그동안 총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정책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총회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방 목회대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허가하기로 했으며 종교인과세 시행에 관련하여 교회에서 비치해야 할 정관 및 재정운용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총회본부에서는 논의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비치해야 할 정관 및 재정운용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총회본부에서는 논의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논의하였다.

3.1절 범국민대회 준비를 위한 시민단체장 모임

자유민주주의 부정에 맞서 총결기 촉구

3.1절 범국민대회 준비를 위한 시민단체장 모임이 지난 2월 1일(목)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려 한민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려는 정치권의 그릇된 행보를 저지하는데 일선만 서명을 통해 총력저지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은 전광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의 개회선언, 이준근 박사의 제1기조별제 '한국인의 파트너, 미국인가? 중국인가?'라는 주제강연이 있었으며, 고영일 변호사의 제2기조별제 '한민계정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다!'라는 주제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강사들은 안보와 경제는 선택의 여지없이 당연히 미국이며 한미동맹은 나라의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이를 잘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 자유를 빼려는 한민계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혼

란스럽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세력에 맞서 총결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 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협정 서명은 일부 좌익단체의 평화를 가정한 국가전복의 계략이며 현재 정전협정 상황 하에 있는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미군은 철수해야하고 이는 곧 자유 대한민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들의 노림수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미 월남에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난 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월남은 즉시 공산화되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적화통일 될 수밖에 도리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대협 당시 리더로서 연세대 총학생회를 지도했다가 전향한 이모 교수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의 지령을 수신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의 교육을 해왔

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현청외대 주요장모진에 이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한기총 중경대표회장 지역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고영일 변호사는 한민계정안에는 차별금지법 성평등, 가족해체 등 천륜을 역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집행위원장은 3.1절 집회는 하나의 주제 '개헌반대'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통일성을 살려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20-30세대의 참여도 확산되는 분위기를 기대했다.
전광훈 목사는 3.1절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몇 번의 모임을 더 가질 예정이며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과거 정치지도자들을 모아 국가회복위원회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교단 2018년도 목사고시 치러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교단의 2018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2월 5일(월)과 6일(화) 양일간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 주관으로 총회신학원에서 치러졌다. 시험 첫 날인 5일(월)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원 3층 예배실에서 고시위원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이문근 목사의 기도, 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고시위원 소개와 시험일정 안내 순서로 예배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6:5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사랑



필기시험에 임하는 목사고시수험생들



총회 고시위원들

프루도초장은
마음의
시냇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3)

성경에는 육신의 안락에 관련된 것들을 복의 요건으로 인정하면서 더 근본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복의 요소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복의 요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3)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전제하에서 복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있어 성경구절들을 깨닫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고 신령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리시니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 14:13)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마음에 평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며 칭찬과 상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셋째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 16:15) 하였습니다.

여기서 옷이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비성경적 신학 사상에 매료되거나 미혹되어 순전한 믿음을 내버리면 그의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넷째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계 19:9) 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란 예수님을 믿어 구속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도 진정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섯째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6) 하였습니다.

부활에는 성도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이 첫째 사망에 속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한 후 최후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 곧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됩니다.

여섯째는,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14) 하였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로움과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야!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목회사역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일획도 가감없이 전해야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오직 주님의 사역 감당을 위해 올인하는 기도하는 종으로써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사역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수험생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었다.

이어서 1교시 교회사, 교회성장학을 시작으로 교회행정학, 구약학과 신약학, 조직신학, 목회윤리학, 기독교교육학, 한민가치론으로 치러졌고 둘째 날에는 성경고시, 설교 및 단점 등의 시험이 계속되었다.

올해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한 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5월 21일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한기연 설 앞두고 백사마을에 연탄나눔

2012년 창립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봉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계동 104번지 백사마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연탄 2만 장을 전달하고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요즘 ‘어 급니 아빠’니 뭐니 하는 사건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전 국민이 올림픽 행사에 관심이 쏠린 이때 우리 한기연이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게 된 것은 그래서 더욱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석 대표회장은 이어 “주변에서는 연합기관에서 무슨 긴장, 발포, 연탄 나눔 행사를



하나 그런 건 개교회들도 다 한다 라면서 연합기관은 대정부 정책과 통일문제만 전념하면 되지 봉사와 구제는 다 개교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기연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어떤 일보다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제23차 정기총회 성료

제24대 총회장에 송주석 목사 선출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평기총)는 지난 1월 29일(월) 오전 11시 평택시 고덕면 소재 은일온누리교회(담임 송주석 목사)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고 24대 총회장에 송주석 목사를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사무총장 김봉연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기길선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김종래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정해은 목사가 히 11:1-2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 총회장 왕영신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에서는 총회장 정해은 목사의 사회로 2017년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후 2018년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장 송주석 목사 △부총회장 김귀현

목사, 정병록 목사, 고준섭 목사 △사무총장 이상현 목사 △협동총무 박종승 목사, 심재학 목사 △서기 치후 총회장 지명 △부서기 최금선 목사 △회계 박태용 목사 △부회계 신주빈 목사 △감사 정해은 목사, 정호일 목사, 오세한 목사

한편, 1995년에 평택군·송탄시·평택시가 행정구역이 하나의 통합 평택시로 발족함에 따라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도 1995년 7월 24일(월)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평택시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를(평택·송탄·서부)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로 통합 총회를 열고 초대 총회장에 조광호 목사를 선출하였으며, 각 지역(평택·송탄·서부) 연합회장을 당연직 부총회장으로 추대하여 평택시내 600여 교회가 연합하여 부활절연합예배와 조찬기도회 등을 실시하며 평택시 기독교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 기도회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평화통일 위해 기도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총재 파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는 지난 1월 25일(목) 오전 10시 ‘한정적목사기념의집’에서 정기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이 기도회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란 공동기도 주제로 열렸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홍종성 목사의 기도, 임동호 전도사의 성경봉독, 이탈리아 성악가 안영의 특송, 총재고문 전석도 목사의 눅 15:17-2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전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는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민족이 하



나님께로 돌아가서 성령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에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괄본부장 김승희 목사의 봉헌기도,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인사 및 광고, 부총재 최연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된 2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최은유 목

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 상임회장 유은옥 목사가, ‘세계선교 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나라 삼아주소서’ 사무국장 김준성 전도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평화통일,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를 위하여 상임회장 마진영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다.

예성, 목사안수대상자 평생교육과정 열려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사명감 고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제29회 목사안수대상자 평생교육과정이 지난 1월 25일(목)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시냇가푸른나무교회(신용배 목사) 수양관인 숲속작은나리에서 열렸다.

‘성결의 복음 교회의 영광’ (엡 5:26-27)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급변 교육과정은 총 55명(남 40명, 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본 평생교육과정은 목사안수 대상자들에게 목사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중복음을 고취시켜 성결교회 목회자로서의 목회 정체성을 세우도록 하며, 목회에 대한 소명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앞으로 한 일게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한다. 위 과정은 예성 한장 부목 9 평생교육원 규정 7조 2항에 의거 당해년도 목사안수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평생교육과정 주제강의는 목회자의 경건(신용배 목사), 목회자의 역할과 책임(이강춘 목사), 목회와 영성(김용수 목사), 목회와 행정(송재원 목사), 목회와 양육(이종만 목사), 목회와 전도(김원규 목사)가 이어졌으며, 심령부흥집회는 안장규 목사(드림교회), 김병욱 목사(부장교회)가 인도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못하고 정회

법원, 대표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9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0일(화)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날인 29일 법원에서 대표회장 선거금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선거 없이 치러졌다.

총회에 앞서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대내외적으로 한기총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 합쳐지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 합쳐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동성애나 동성혼, 차별금지법 성평등도 지구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어려움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기호 목사는 또 “한기총은 누구의 잘못을 들추기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과 평안의 때는 줄로 하나 되지”며 “한기총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총대 368명 중 241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가 되어 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회순채택, 전 회의록 채택, 2017년도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안건 및 기타 회부처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관심사인 대표회장 선거는 가처분 인용으로 치러지지 않았다. 기타 안건으로는 또다시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된 것에 대한 감론을박이 오갔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공동회장 중 가장 연

장자인 김창수 목사(예장 보수합동)를 대표회장 대행으로 지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시의장이 된 김창수 대행은 “한기총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여러 총대님들이 앞으로 잘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회의는 곧바로 정회가 선포됐으며,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전광훈 목사, 한기총 금권선거 민형사적 책임 물어

현장 증거 이미 확보, ‘구속수사 진행되도록 최선의 조치 다 할 것’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했지만 서류 미비와 예상 대선 측이 한기총 소속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제지당해 법원에 대표회장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전광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금지 결정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한기총 24대 대표회장에 출마하여 선거하는 과정을 통해 보지 못할 사건

들을 보게 되었다.”면서 “이와 같은 범죄적 행위는 대한민국 어떠한 공간에도 없는 희귀한 일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천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 몇몇 사람에 대하여는 민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 증거들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전 목사는 “조만간 검찰에 접수하여 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종로5가의 문화가 하나뿐이냐와 한국교회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종로5가가 몇몇 사람의 범죄적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기총을 비롯한 종로5가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를 피력했다.

(사)예총선교연 제2회 정기총회 열려

총재 김인식, 상임총재 김광본, 대표회장 강재원 목사 선출

(사)대한예수교총회선교연합회는 지난 1월 18일(목) 오전 11시 성은교회 본당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갖고 총재에 김인식 목사, 상임총재에 김광본 목사, 대표회장에 강재원 목사를 선임했다.

1부 회회예배는 이사장 정원수 목사 사회로 이사 박전진 목사의 기도 후 구국기도원 총재 강재원 목사가 왕상 18:30-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연합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예배는 계속해 국제합동총회의장 장성호 목사·합동예총 증경총회장 고홍기 목사의 격려사, 연합총회장 김광본 목사·장로교총



회장 김현세 목사의 축사 후 상임총재 김광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부처리는 대표회장 강재원 목사의 사회로 대회사 및 회원점점, 회의선언, 회순

채택, 전 회의록 낭독 후 각부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관에 따라 임원개선 후 임원취임을 가진 후 모든 안건을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미드웨스트대, 글로벌리더십 업그레이드

Ph.D. in Leadership 학위과정 인준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가 미 연방정부 인준 기관인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로 부터 지난 2017년 12월 22일자로 「Ph.D. with Concentration in Leadership」 학위과정을 인준 받았다.

이 학위 과정의 세부 전공으로는 교육 리더십, 무노기개발/영재교육, 경영 리더십, 조직 및 사역 리더십, 정치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국 미주리(Missouri) 주 웬즈빌(Wentzville)에 1986년 설립된 미드웨스트대학교(설립자, 총장, Dr. James Song)는 32년 동안 배출된 동문들이 60여 개국에서 전문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미드웨스트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인준받아 그동안 리더십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MBA에서 리더십, 국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과정과 Doctor of Leadership 박사 학위과정에서 교육리더십,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전공을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12월 22일자로 연방정부 인준



관인 ABHE 로 부터 Ph.D. 학위과정 인준을 받아 교육리더십 (무노기개발과 영재교육 리더십), 전문 경영인을 위한 경영리더십, 조직 및 사역 리더십 과정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학점 취득은 영어 혹은 한국어로 가능하며 미국유학 혹은 Online 과 집중 세미나 형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리더십 Ph.D.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 없었기에, 글로벌 리더십 포럼 (GLI 국제대표, 제임스 송 총장)을 통해서 지난 38여 년 간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 미드웨스트대학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드웨스트대학교는 MBA 과정에 공공정책과 행정학,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십, 투자 및 부동산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무노기개발 영재교육 석사학위(MA) 과정을 통해 전문 영재교육 교사도 양성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항공대학도 인준 받음으로써, 항공운항 학사 학위와 미국 항공국에서 발행하는 FAA 국제 조종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세계 항공사 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동 대학교는 항공대학, 경영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음악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ESL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 국무성으로부터 DS-2019, DS-3036, DS-3037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준받아, 우리대학 IRC 국제 리서치 연구소를 통해 공무원, 교수들이 J Visa로 연방정부 산하 기관, 주정부, 의회, 시청, 카운티, 병원, 검찰청, 교육청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 가결, 타 지자체에도 영향 미칠듯

충남도민 “동성애 옹호하는 나쁜 인권조례 폐지” 촉구

충청남도의회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이 지난 2월 2일 가결되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찬성 25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동성애가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교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도지사가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펼치는 노력을 해왔지만, 오히려 도민간 차별과 부작용 우려 등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보류되기 하루 전인 1월 28일, 2만여 충남도민들이 천안삼거리공원 광장에 모인 ‘도민시국집회 및 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까지 옹호·조장하는 것을 우려하며 8만 도민의 인권조례 폐지서명을 받아 내기도 했다.

온재천 목사(아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에서는 최만준 목사(천안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가 설교했

고, 김원평 교수(부산대, 동남연 대표)가 시국 연설을 했다. 이후 △나라와 민족 △인권조례 폐지 △한법수호를 위해 합심기도한 후 구호를 제창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만준 목사는 설교에서 “천안과 충청남도를 넘어 전국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한 자리에 모였다. 행동하는 양심을 따라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나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그것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원평 교수는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 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헌법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취지문을 통해 “역사와 대한민국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냈고, 앞으로도 낼 것이다. 나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려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2012년 5월 충청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충남인권조례를 제정, 2014년 10월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한 ‘충남도민인

권선언’을 공포하고 사실상 차별금지법 역할을 했다.

충청남도는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성애 옹호 교육 및 관련 기관의 조사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시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충남 교계와 시민단체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시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후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충남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인권조례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면 충남 유권자 208만여 명의 1%인 2만명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6개월 만에 5배가 넘는 11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시민단체와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등 교계는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다방면으로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는 도의원 설득에도 나서 지난달 충청남도 의원 25명이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고 안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회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127개 단체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으로 제정된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는 미명히 폐지해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전중서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진태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시기 최연범 목사,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온재천 목사, 천안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최만준 목사, 예산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박규용 목사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안희정 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 되고 재의요구시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1월 28일(주일) 오후 3시 30분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열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 시국집회 및 기도회 광경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 다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1월 9일(화) 오전 11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순복음교회(담임 황용식 목사)에서 신년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회장 이성석 목사(샘빛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권점식 목사(순복음늘푸른교회)의 대표기도, 총무 신홍섭 목사(한말의밀알교회)의 성경봉독, 정상근 목사(성실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요 21:15-22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재무 윤득주 목사(언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한소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시무식에서는 회장 이성석 목사가 교단과 지방회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1월 22일(월) 모향순복음교회(담임 이강자 목사)에서 신년하례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홍종학 목사의 대표기도, 회장 박상규 목사의 민 21:4-9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미래를 여는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회계 박운석 목사의 헌금기도, 박상



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 시간에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모향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대접한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 삼산 순복음교회)는 지난 1월 22일(월) 오전 11시 증평새희망교회(담임 김용 목사)에서 1월 월례회를 가졌다.

김 목사는 왕상 17:8-16 말씀을 본문으로 “희망을 가지세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르밧 과부는 한번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형편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죽는 사람을 보면 동전 하나 없을 때까지 버티다, 버티다 죽는 사람은 없고, 미리 비관하고 부정적이 되어서 삶을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서,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 때까지 버티야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과 사역과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새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가 드리신 예를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진행으로 재무 조재호 목사, 회계 민병훈 목사, 서기 신병설 목사, 김용 목사의 총무 보고에 이어 기타 인건을 처리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과 충북지방회 신하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후 지방회장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새희망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자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진장길 목사)는 지난 2월 2일(금) 오전 11시 진부제일교회(담임 이성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정주영 목사의 사회로 최정희 목사의 대표기도, 회장 진장길 목사의 북 16:8-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유호림 목사의 헌금기도와 박순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원들

은 함께 식사를 한 후, 식사대회를 즐기며 은혜 안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 대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청 : ① 센터(인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②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③ 은혜의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c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 생명의 말씀 ■



정 형 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재판위원장 역임
- 자비량작은교회들기운동본부 총재
- 즐거운우리집 요양원 이사장
- 대소우리교회 원로목사

오늘 본문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군대 지휘관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으며 하나님이 고넬료의 신앙을 기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눅 7장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넬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는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부모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덜 좋은 가정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녀들은 믿음이 좋는데 부모가 믿음이 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부모 자녀 하인까지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려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을 2:12-13) 지금이라도 구제역이나 기근과 지진, 가난, 어려움,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말씀대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앙을 면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68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지키기 힘들니까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 사랑의 계명 즉 십자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 안에 680가지 계명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읽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는 0점입니다. 매일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이런 사람은 ‘1’자 신앙인입니다. 성령을 특허 낸 것처럼

성령은 자기들만 쓰는 것처럼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오라고하면서 은혜 많은 척합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올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기 맘에 안들면 고소 고발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자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하고 믿음이 없는 데도 대인관계를 잘 합니다. 인격이 괜찮아 보입니다. 마치 국회의원 출마해서 한 표 찍어달라고 할 때처럼 대인관계는 잘하는데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은 마이너스 신앙이라고 합니다. 은혜도 ‘-’ 축복도 ‘-’ 뭐든지 ‘-’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하고 대인관계도 잘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더하기 신앙입니다. 은혜도 충만하고 축복도 더하고 뭐든지 더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1’자 신앙도 아니고 ‘-’ 신앙도 아닌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요 기도하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이

정립된 사람입니다. 신앙의 규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요1:12) 이렇게 되려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산출합니다. 큰 일을 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6장에 보면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동료의 시기로 필박을 많이 받았습니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왕이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계속 만사형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과 같은 세상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사자, 안전사고의 사자, 구제역과 같은 사자들, 각종 질병의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 몸이 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과 같이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산장 12:23).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것은, ‘인권’이란 빌미로, 우리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며 정상적인 다수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전조전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왜 정부는 기독교계를 무시하는가? 현재 인권위원회 중에는 불교계 인사는 남아있다. 정부는 기독교계를 소외시켜, 결국은 기독교계와 각을세우려는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2월 4일 이 모 변호사의 인기가 종료되는데, 기독교계는 이를 두고 볼 것이다. 정부는 기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하여 즉각 심의를 요청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즉시 ‘유해 매체’로 등급을 매겨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과 보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기독교 몫으로 임명하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닌 장애여성 공감 대표로 임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독교계의 최

이우 목사(종교교회)의 임기가 끝나자, 배모씨를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인권위원을 임명한 것이며, 그 동안 김영원 목사, 김영영 목사, 최이우 목사 등이 맡아 왔던 비상임 인권위원

지리를 기독교 대표 인물이 아닌 일반인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몫을 빼앗는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예우를 저버리는 것이며, 기독교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종교계를 배제하

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성적 지향)가 담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본재인 정권이 기독교계를 제외시키는

성인 간행물인 ‘플레이보이’ 지 청소년유해간행물 아닌가?

플레이보이(PLAYBOY)지는 미국에서 성인 간행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플레이보이(한국판)지가 버젓이 코레일의 유통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에서 누구리도 볼 수 있게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것이 청소년들 손에 들어가 얼마나

유해한 것이 될 것인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플레이보이(한국판) 1월호를 보면,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선정적인 모습이 중점된다. 여성의 나체에 가까운 모습은 물론 민감한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 부부들이 침대에서 주고받는 대화까지 등장한다.

그런데도 이를 심의하고 등급을 매기는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이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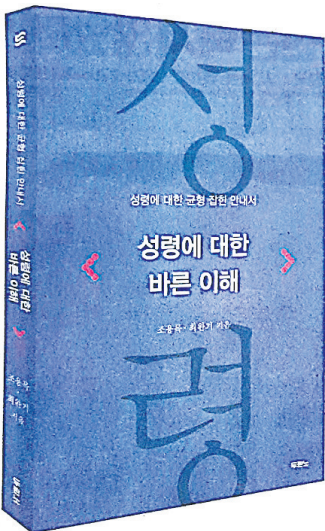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매체물을 심의하여 플레이보이 지에 ‘주의’ ‘한기’를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고사’만 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는 누가 규제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는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제7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저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동 정

황교안, 부산극동방송서 특강



극동방송은 지난 2월 2일(금) 부산극동방송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사로 제46회 극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정·재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해 각종 사회 현안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목회자 위한 ‘목회나눔’ 강좌



세계지도력개발원(원장 박조준 목사)은 오는 2월 22일(목) 경 기도 성남에 있는 세계지도력개발원에서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목회나눔’ 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6월까지 이어지는 강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9시에 진행된다. 주 강사인 박 목사는 목회자 재교육과 목회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줄곧 운영해왔다.

나사렛대, 원어민강사 수급관리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가 2008년부터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온 ‘천안국제교육특구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2022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재수탁 받아 초·중·고에 원어민 강사 수급과 관리를 운영하게 됐다. 나사렛대학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 539개교 429여 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다.

성결대, 인도 네루대 MOU 체결



성결대학교(총장 윤동철)가 인도 자와 할랄 네루대학교(이하 네루대학)와 지난 1월 25일(목) 오전 10시 인도 네루대학에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네루대학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남아시아 전체 유일하게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국어 고등교육기관이다.

40대 주부, 새해 첫 신장기증 새 생명 선물

황아현 씨, “생명나눔의 소중함 깨닫고 사랑실천”

(좌)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월 25일, 새해 첫 순수 신장기증인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40대 주부인 황아현 씨(44세, 울산)가 자신의 콩팥 하나를 생면부지 환우에게 기증한 것이다. 황 씨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은 이식인은 50대 주부로 만성신부전으로 16년간 투병생활을 이어오다가 이번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됐다.

새해 처음으로 순수 신장기증을 하게 된 황 씨의 수술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 이식 한덕중 교수팀의 집도하에 진행됐으며 이로써 황 씨는 본부를 통해 생면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967번 째 주인공이 됐다. 지인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황 씨는 곧바로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를 찾아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또한 사후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하면서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존시 신장이식 결연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그 후 신장기증을 한 다음에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기증인들의 사연을 접하며 생존시 신장기증을 결심하게 됐다.

한편,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직접 실천한 황 씨는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과 함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도 5년간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공공조세정책연구소, 종교인과세 4차 공개강좌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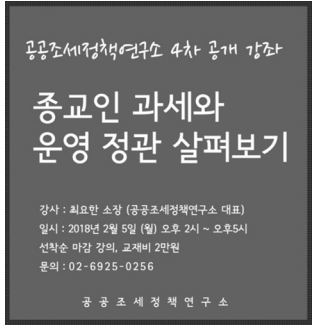
장헌일 목사,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공공조세정책연구소(대표 최요한 소장)는 기독교 정관과 재무회계사직 관련 4차 공개강좌를 2월 5일 오후 2시 생명나무교회(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4길 11 -10,2층)에서 개최했다.

“종교인과세와 운영정관 살펴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공개강좌에는 공공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최요한 소장이 강사로 나섰다.

201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공개 강좌를 진행한 바 있는 공공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최요한 소장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종교인과세 제도는 앞으로 야기 될 많은 변수들에 대한 대안은 빠진 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시행령들이 개정되며 구체적으로 종교인 소득 신고에 대한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금융의 규정,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서 노출될 수 있는 해외 선교사들의 신분 등 한층 더 고민하고 되짚어봐야 할 사안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나무교회 장헌일牧사는 “작년 리플렛과 책자를 통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고, 몇차례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서로가 불통인 채 마무리 되었다.”면서 “우선적으로 교회가 소리 높여 말하는 가치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무료로 알려주고 있



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소극적 태도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목사의 사례를 언급했다. -K목사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교인과세 대상 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받은 후 큰 고민에 빠졌다. 20년간 사역 후 은퇴한 K목사는 현재 대출 받은 금액으로 부지를 빌려서 시골 기도원의 원장으로 지내고 있다. K목사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조그만 땅에 소일거리의 농사를 짓고, 매일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회이자를 갚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기도원은 이

용지가 없고 건물과 밭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고, 교인이나, 사용자도 없는 상태이다. 약간의 은퇴연금으로 생활하는 K목사는 자신의 적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용지를 불태워 당황한 것이다. 종교인과세 신고와 기존의 기도원은 사람은 없고 부동산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등록하고 관리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

장헌일 목사는 위의 사례처럼 “목회자 개인 명의이지만 교회 부지를 대할받은 경우 개인 소득으로 추정된다. 또한 교회에서 이자를 내주고 있지만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일정하게 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개인 소득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시골교회 목사이다 보니 중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종이란 들고 밭을 구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지혜롭고 투명하게 종교인과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신간을 출간할 예정이다.

예약문의 : 02-6925-0256 문의 : 02-6925-0256 / 홈페이지 접속 (http://ptpl.modoo.at)

배우 한혜진, 난방비 후원에 동참

월드비전, 저소득가정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지난 1월 15(월) 배우 한혜진 홍보대사로부터 국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2008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한혜진은 추운 겨울철을 맞은 국내 저소득 가정의 어르

신과 아이들을 위해 월드비전 난방비 지원사업에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한혜진 홍보대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국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에 쓸 계획이다. 월드비전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내 위기가동가정에 연탄·등유 등을 지원하고 보일러 수리와 교체, 기온내부 수리를 통한 단열상태 개선, 방한복이나 겨울이불 지원 등 근본적인 난방여건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17

최정식 목사 // 순복음복원교회 담임, 목회학 박사, 세계교회부흥선교회 대표회장, 동광 안디옥성경신학대학 이사장, 목경신학교 이사 및 교수, 기독교임스 편집위원, 성경적 경제부흥 강사



십일조(十一條)의 법칙(2)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동산을 아담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새 시대를 준비할 것을 경고하셨다. 그것은 신앙의 회복과 경제문제였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안정이 돼야 통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숭배하고 십일조를 소홀히 함으로 저주가 임하여 백성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하스기아 왕이 대대적인 우상척결운동과 신앙부흥운동을 일으켜 십일조 회개운동을 통하여 백성들이 행동한 삶으로 회복되었다.(대상 31장). 그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함으로 패망하여 70년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성전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느 13:10).

따라서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중심으로 본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헌금이나 기부금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구제금도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주시 씨앗 종자라는 사실이다.

농부가 자기 땅에 먼저 씨앗을 심는 것처럼 내가 복을 받기위해 내가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씨앗으로 먼저 심는 것이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말씀이다.

신 28:12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사 30:23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족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10절 하반 절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은 농사의 원리인 재생산의 원리로서 씨앗의 비밀인 생명력

과 번식력과 유전자 정보가 있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번식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창 8: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둬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점진적이고 땅에 충만하도록 장구한 복을 주시는 것이다.

11절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을 (개역개정성경에는 ‘메뚜기’로 바꾸었다. ‘황충’은 성경에 14번 나온다. ‘황충’은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다. ‘살무š’라고도 번역한다. ‘황충’은 계시록 9장에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십일조와 한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축복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해도(요 10:10)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재물, 건강, 생명, 가정, 자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11절 하 반절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장구한 복으로서 두 가지의 미가 있다. 먼저는 과일을 수확 할 시기가 되기 전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낙과’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뜻이고 원하(2:19). 금년농사를 수확하여 내년농사를 수확할 때 까지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즉, 이 땅에 받은 월급이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지켜주신 농사는 풍년이 들어 보기에에도 좋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인정하고 부러워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창 26:12-14에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았을 때도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고, 28, 29절에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이 성경적 경제부흥이다

그러므로 말라기서의 십일조는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경제부흥의 원리로서 이 땅에서 창대한 복을 받을 씨앗 종자다. 십일조를 씨로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 부흥원칙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나라 통해 교회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고 지손대대로 장구한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제부흥의 원천인 십일조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한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KJV 딤후2:3

훌륭한군사

제6기 훌륭한 군사를 모집합니다.

대상 | 청년(20세-35세)
일시 | 2018. 2. 14(수) - 17(토)
장소 |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송평길 105-7
신청 | 010-5145-3816 기호선복사
주관 | 엔학고레미니스트리



ENHAKKOREMINISTRY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 병 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김인연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전 부총회장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침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하나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 (세소침교회)	 증경총회장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와평강교회)	 증경총회장 최광택 목사 (일신은혜교회)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 (진주제일교회)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직선총회장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총회장 김양인 목사 (복음제일교회)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증경총회장 엄기철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증경총회장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침교회)	 상임위원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상임위원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상임위원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상임위원 김병목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정석원 목사 (영강교회)	 상임위원 백영자 목사 (복동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계누교회)	 상임위원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영광교회)	 부회장 최경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하나교회)	 상임총무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미교회)	 상임총무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상임총무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사무국장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실무총무 김병호 목사 (순복음영복교회)	 실무총무 박종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실무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삼동교회)	 서기 임형준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재무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회계 양은혜 목사 (청조교회)	 감사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감사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회원 윤성수 목사 (전주은혜교회)	 회원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름교회)	 회원 김연옥 목사 (영복한신교회)	 회원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회원 임영철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회원 홍원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회원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회원 정관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회원 김명주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회원 서법석 목사 (가나안영성원교회)	 회원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회원 정예스더 목사 (예수향기교회)	 회원 김남수 목사 (빛의교회)	 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한기총 총무협 제17-1차 워크숍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특강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회원 교단 및 단체 총무들의 친목단체인 한기총 총무협의회(회장 김경만 목사)는 지난 2월 2일(금)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영종도스카이리조트에서 제17-1차 월례회 및 세미나를 1박 2일로 개최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다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서승원 목사의 사회 아래 부회장 강세창 목사의 대표기도, 조정삼 목사(예정개혁총회 총회장)가 설교했다.

제2부 회의는 ▲규칙개정 보고, ▲해외선교지 탐방 및 워크숍, 국내 워크숍, 국내순교지 탐방, 문화사업 탐복자 지원, 사회사업, ▲회원수첩 제작하여 2월 중순 배포하기로 결의했다.

제3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재형 목사(예장 개혁 총무)가 강의했다. 또한 경품을 푸짐하게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회장 김경만 목사는 취임사에서 “17회기 때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해 목회 현장에 도움을 주며 체육대회와 아우회 등 정기적인 친목 모임을 활성화 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확장하겠다. 또한 임원 일부가 총무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키텍트인 은혜로운 단체가 되도록 이끌겠다”면서 “이와 함께 총무협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경만 목사, 부회장 강세창 목사, 송재량 목사, 이경미 목사, 이병일 목사, 김그레이스 목사 △서기 서승원 목사 △부서기 고광운 목사 △회의록서기 윤진수 목사 △부회의록서기 남궁호 목사 △회계 이향우 목사 △부회계 조미경 목사 △감사 도용호 목사, 이대성 목사.

정현백 여가부 장관, 한기연 방문 환담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 기독교계 각별한 관심 요청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기독교연합을 방문,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환담)하고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 주요 정책과 관련 기독교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 한기연을 예방한 정현백 장관은 기독교가 그동안 여성가족 분야 및 한부모 가족 지원, 고비용 환원문화 개선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기연이 얼마 전 여가부의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우려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여가부는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과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실제적인 전도 방법을 경험하면서 열정과 자신감이 생겼다!

마 28:19-20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전도했다. 처음 보는 자 누구나 만나서 예수 영접 기도하고 안수하였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를 그 자리에서 알려 주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동적인 현장이었다.

그것도 불과 3, 4분 동안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였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1시간 20분 동안 무려 20명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가족 모두를 알려 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기했다. 가계와 사업장, 식당, 노인장, 가정집, 아파트에서 혹은 길거리와 자동차에서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 전도법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전도방법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방법이고 가장 빠른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확실한 전도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도전을 강하게 받았다.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면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라고 묻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라며 바로 영접기도에 들어간다.

그런데 거의 따라서 영접기도를 한다. 1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각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따라 한 사람들은 주일 11시 예배에 나올 것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많은 전도방법을 배웠는데 가족세트전도 방법은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성령님께서 박수 목사님과 함께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전도가 쉽게 느껴졌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결실을 맺을 것 같다. 정확한 전도법을 찾은 것 같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실제적인 전도 방법을 경험하면서 열정과 자신감이 생겼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장부 윤현동교회 김덕례 사모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포항에 희망을!”, CTS ‘포항 지진피해 그후’

CTS <7000미라클>, 포항 지진 현장을 다시 찾다!

2017년 11월 15일,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 지진 발생일로부터 80여 일이 지난 2018년 2월, CTS <7000미라클> 제작진이 포항 지역을 다시 찾았다. 2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총 2부로 편성된 이번 방송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었던 포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며 포항의 현실을 알려줄 예정이다.

2월 6일(화)에 방송되는 ‘포항 지진피해 그 후’ 1부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난 지금, 추가적으로 균열이 발견돼 전파(완전 파손) 판정을 받은 포항시 여러 아파트의 처참한 모습과 함께, 지진으로 인해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린 포항지역 교회와 피해를 입은 성도들의 상황을 다뤘다. 시간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 지진의 여파로 삶과 생계 타격을 입은 포항 시민들과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한다.

2월 7일(수)에 방송되는 ‘포항 지진피해 그 후’ 2부에서는, 계속되는 여진의 공포와 지진 발생 80여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수리, 복구를 못하고 있는 포항지역 교회들의 현황을 보고한다. 이와 함께 교회 역시 지진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역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포항지역사역자들의 헌신의현장을 전한다.



‘포항 지진피해 그 후’ 1부에서는 CTS 포항방송 이사장 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포항노회 동반성장위원회 임원 정승수 장로(기쁨의교회), 예정통합 포항노회 임원 이희원 장로(영혜교회)가, 2부에서는 박석진 목사와 예정통합 포항노회 임원 조희목 목사(포항하나의교회), 예정통합 포항노회 임원 유승대 목사(달전제일교회)가 출연해, 지역교회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과 수리, 복구 현황, 포항지역과 주민들의 회복을 위한 교회들의 섬김과 나눔, 영혼 구원 이야기들을 전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지

난해 11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포항 피해 현장에 긴급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총 2부로 특집방송을 기획해 방송했다.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읍은 물론 장성동, 곡강리 등 피해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외진 마을의 안타까운 모습을 영상으로 전한 바 있다. 또한 한동대학교를 비롯해 지역 80여 명의 봉사자들과 지진피해복구단을 구성한 포항연탄은행 대표 유희범 목사,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회장 조근식 목사) 등의 구호 활동을 소개해 복구를 위한 봉사의 손길을 요청하기로 했다.

CTS는 지난해 특집방송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4,480여 만 원의 성금을 지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지원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찾은 포항! 지진 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포항 땅을 위해 기도하게 될 CTS <7000미라클> - 포항 지진피해 그 후에서는 CTS 시청자들의 후원과 중보의 손길을 기다린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olleh tv 236번, SK BTv 301번, LG U+ 180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저소득 가정 난방비 지원사업 위해 사랑의 기부

영락교회, 월드비전에 2천만 원 기부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1월 27일 영락교회에서 국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난방비 2천만 원을 후원 받았다.

월드비전에 전달된 후원금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으로 국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에 쓸 계획이다.

월드비전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내 위기가동가정에 연탄·등유·가스 등을 지원하고 보일러 수리와 교체, 가솔내부 수리를 통한 단열상태 개선, 방한복이나 겨울이불 지원 등 근본적인 난방여건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영락교회는 후원금 전달뿐만 아니라, 영락교회 사회봉사부와 중·고등학생·청년 60여 명이 모여 은

평구 수색동 주민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10곳을 방문해 2,000 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나눔 활동을 펼쳤다.

영락교회 이철신 담임목사는 “이번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통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한파로 고생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면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세계선교연합회 인도, 미얀마, 나이지리아를 신년기도회

세계선교 적극화, 선교의 비전을 힘 있게 이루어가는 2018년 기원



인도네시아선교지에서의 예배 풍경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영목 목사) 세계선교연합회 산하 인도, 미얀마, 나이지리아, 태국, 네팔선교회 신년 기도회가 지난 1월 28일 오후 울산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드려져 회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것을 다짐하였다.

회장 권영호 장로의 사회로 인도선교회 부회장 김순영 안수집사의 기도, '그레이트 앤 트루스' 선교회가 '의 특송, 전권훈 목사의 설교, 합심 기도

순서로 이날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적극화'를 교회 3대 목표의 하나로 삼아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한 결실로 세계 도처에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선교지가 확장되어감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어서 모든 선교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수가 늘어가게 하여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알려드립니다

교단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박용호 목사입니다. 지난해 목회자세미나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청정자연을 품은 정말 좋은 환경의 산청한방가족호텔에 매료되어 사외이사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회행사 및 세미나, 회의, 발표회 등 귀한 행사에 좋은 환경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 사외이사 박용호 목사 010-4873-0448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지방회

순복음세움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설교



김양인 목사
교단 총회장
목양제일교회

지방회장



조명희 목사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기정순복음교회

담임



정기영 목사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순복음세움교회

일시: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정기영 목사)
부 산 지 방 회 부산시 부산진구 191-777(010-4841-4245)

개념을 잘못 잡아주는 한국사 사전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 박정희는 독재자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용어와 인물, 그리고 사건과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개념 잡는 초등 한국사 사전”이 역사에 대한 개념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어 놓고 있다.

이 참고서는 주니어김영사에서 출판한 책으로 초등학교생이 꼭 알아야 할 역사 용어 450개를 뽑아서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근·현대사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을 평가한 것을 보면,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는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해산전의 일본군 보전보를 공격했으며 6·25전쟁 때는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전쟁을 주도했고, 주체사상을 세워 중국과 소련과는 다른 사회주의 노선을 선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책 90페이지)

반면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우리나라 헌법과 자주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뒤 부분에 보면, ‘부산 피난 시절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기둔 채,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되었고, 헌법을 불법으로 고쳐, 제3대 대통령이 되었고, 1960년 3월 15일에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였고, 4·19혁명이 일어나 대통령에서 물러났다’고 기술하고 있다.(책 306페이지)

그런가 하면, 한국의 산업근대화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군 징교로 태평양 전쟁에 가담하였고,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문제를 국민이 반대해도 강행하였고,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독재의 길을 열어주었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으며 측근이던 김재규의 총에 맞고 죽었다’고 기술하고 있다.(책 157페이지)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기 보다, ‘기위와 풀만’ 사용했다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학문적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다. 아찌 1950년 당시, 소련과 중공 군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통일 전쟁’이라는 미명으로,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게 한 북한의 김일성은 두둔하고, 대한민국의 두 대통령에 대한 것은 ‘독재자’와 ‘부정’을 자지른 대통령으로 몰아가는 것인가?

역사 서술의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위한, 역사 사전으로 발행 되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넘어, 경악스럽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김 씨 왕조 3대에 걸친, 70년의 끔찍한 독재는 논외로 하더라도, 김일성 개인 46년간의 독재와 부정과 인권 탄압과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죽게 한 그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요 동족상잔의 범죄자인 김일성을 아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는 초등생을 위한 “한국사 사전”이라고 볼 수 없는, 어느 나라에서 발행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아찌 이런 내용으로 공부한 아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성세대가 역사를 바로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역사는 사실 못지않게 진실이 중요하며, 부정(否定) 못지않게 균형과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책은, 각 종교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불교(186페이지) 천주교(357페이지) 천도교(355페이지) 유학(289페이지)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천일자로 변절하기 전 춘원 이광수는 ‘우리 민족은 기독교에 대하여 감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진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조국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 기도에 온 몸으로 맞서 싸운 기독교, 민족 역사의 영원한 자랑스러운 여기는 3·1독립만세운동이 기독교가 중심이었다는 엄연한 역사조차 외면한 것은 “개념 잡는 초등 한국사 사전”이 아니라 “개념 망치는 잡서”라고 평가해야 옳다고 본다.

이 책은 당시 박 모 씨, 또 다른 박 모 씨, 그리고 최 모 씨가 썼고, 국민대 이 모 교수가 감수하고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흔히 ‘역사는 힘 있는 자의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평가와 사용은 이제 약자가 된 양식 있는 사람들과 배우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강력한 의견 표명으로만이 바로 잡힐 것이다.

— 한국교회언론회

한기총, 대표회장 대행에 김창수 목사 지명

제29회 정기총회, 선거 없이 진행… 향후 속개 예정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9회 정기총회가 1월 30일(토)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날인 29일 법원에서 대표회장 선거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선거 없이 치러졌다.

정기총회 전 설교한 중증대표회장 이광성牧사는 “한국교회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한기총이 무지려면 대표회장을 잘 뽑아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뽑으면 잘 선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될 수 있다. 하나님은 외모와 스펙으로 사람을 뽑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대표회장 임기호牧사는 인사를 전했다. 그는 “내년 30주년을 앞둔 한기총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연합단체의 통합이다. 다른 데서 볼 때는 통합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복귀’라며 ‘한기연이 된 회교연과 통합의 여지를 두고 다음 달부터라도 한 지부 밑 두 살림’을 하더라도 일단 합쳐지는 교감이 오가고 친척이 되고 있었다. 한교



총도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합동 측은 올 중순 내에 한기총으로 복귀하도록 대화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牧사는 “대내외적으로 한기총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 합쳐지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 합쳐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동성애나 동성혼, 차별금지법 선포등도 자꾸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기호牧사는 “한기총은 누구의 잘못임을 들추기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과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자”며 “한기총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총대 368명 중 241명이 참석해 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회순제택, 전 회의록 채택, 2017년도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안건 및 기타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선거는 가처분 인용으로 치러지지 않았다. 기타 안건으로는 또 다시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된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다.

임기호 대표회장은 공동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예장 보수합동측)를 대표회장 대행으로 지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시회장이 된 김창수 대행은 “한기총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여러 총대님들이 앞으로 잘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올림픽이 북한 선전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다. 개막식 참석 방침을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대북 압력 최대화 방침을 문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은 올림픽 개막 전날 평양에서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핵·미사일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23일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는 올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까지 요구했다.

2010년, 2014년 대회 유치를 연달아 실패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며 오랜 기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들은 ‘평창올림픽’이 뒤늦게 참여하면서 감정을 일삼는 북한의 교묘한 책략에 진정된 올림픽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국제사회는 북핵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전술에 밀려들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국가가 아니라 높은 스포츠·문화 수준을 가진 나라임을 과시하려는 듯 마시킹스키장 선전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위장전술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런 위장 평화쇼에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2일 비핵화가 빠진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대북 제재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2375호 대북 결의의 합작 금지” 조항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전면 철수시키고 있다고 한다. 안보리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달 11일로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합작 기업이 사라지면, 북한 경제와 무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북한 러시아대사는 최근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2019년 말까지 벌목공 등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전원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없는 대화와 평화쇼는 무의미한 것이며, 국가 안보와 종교의 자유는 비핵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호와와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시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영으로 너희와 그의 밭을 갈고리라”(신6:18)

3.1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폐기에 대처

99돌을 맞는 31절에 범국민대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국민적 결기, 민족적 합성으로 승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준비모임이 지난 1일 새강회문세종홀에서 열려 결의문을 발표했다.

31절은 세계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으며 지구촌 식민지 백성 최초로 자유민주 노선을 명확하게 선언한 독립운동이었다. 새로운 문명 속에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스스로의 피와 땀과 지혜로 변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위대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백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해체되느냐 마느냐, 위태롭기 짝이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유혹하여 공화국의 중앙정부와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있다. 이에 자유민주 시민이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한반개정은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전체주의사교(邪敎)인 김일성 체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민주 세계 자유시장 경제를 향해 나아가게 될 북한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한반개정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지금의 정자원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날 모임에서는 삼일절 범국민 대회를 열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국민적 결기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밝히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개헌에 반대하고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옹호하며 정치권에 의한 중앙정부 해체 음모를 분쇄하는 시민 선언의 장이 되어야 할 것과 한반개아 반대, 대한민국 국가 회복을 통일된 메인 슬로건으로 사용할 것을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려는 음모를 분쇄 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세계 자유시장 경제를 향해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며 통합될 수 있는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시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으로 거듭 세울 것을 다짐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옥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암, 수원, 하남 이전,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요한복음 4장 1-6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여인의 비교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손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말씀이 더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하였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안다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필자 요한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하며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앞에서 여인을 만나는 배경이 나타납니다.

3장 니고데모와 4장 여인의 비교가 나옵니다. 첫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사마리아여인은 낮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였고, 거듭남에 대해 어머니의 뱃속을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인간의 입장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사모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갈등이 심했습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어우러져 지냈고, 다윗 왕은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지냈고,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은 나중 합쳐져 다윗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 이방여인을 받아들여 우상숭배가 많아 남유다·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 갈라졌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0지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 유다지파로 예배를 드리기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할 때 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단과 벰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도 비슷하게 흉내 내어 만들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BC 722년 앗수르에게 망했고 앗수르의 정책은 모두 홀로서는 반란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이 혼합이 되어 북이스라엘은 순수성이 파멸되고 혼혈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남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였지만 포로수용소처럼 지역을 만들어 그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 유다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보고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경멸하였습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갈릴리 사람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배드리러 하다가 사마리아지역에서 살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생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종시키려 했습니다. 중개는 없으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임으로 모든 것을 사마리아인에게 돌렸습니다. 유대전통 신앙인들이 그렇게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입니다. 신앙에 와서 바울은 다 끌어 안기위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로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유다의 2지파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정통성은 항상 파멸을 만듭니다. 니고데모는 남지파이며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이라 차별합니다. 차별은 철폐하고 차이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차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만든 것은 사람이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인은 생산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 와서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서고 성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할은 상당했지만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만나나 낮에 만나나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아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 카이노스와 크레노스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개인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더 중히 여기십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로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